



3면

강성희 의원 "尹,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음 12월 12일) 제34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윤곽' 나왔다

시,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
국비 204억 등 291억 투입
올해 기본·실시설계 추진
2026년 말까지 완공키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공모 당선작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개발 계획에 맞춰 옛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윤곽이 나왔다.

전주시는 한국문화원형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문화브랜드를 창출해나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설계 공모의 당선작으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인지)의 1인이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국비 204억 원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베드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 극장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이 들어서며, 시는 한(韓)민족이 공유하는 전통(민족)문화에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의 실감 콘텐츠를 입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디지털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도심 속 여백의 공간에 수변정원의 풍경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비움을 바탕으로 전주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부지에 축적된 과거의 기억을 거울연못을 통해 되돌아보고, 향후 들어설 시립미술관과 연계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이 조우하는 공간 구성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제출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인지)의 1인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시는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 올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MICE복합단지와 맞물려 옛 야구장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전시관·전시관이 전통문화 향의 인력 및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시설이자, 교육·체험·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옛 야구장 부지에 들어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이 전통문화 향의 인력 및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시설이자, 교육·체험·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 찾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북특별자치도, 민생 최우선 돼야”

김관영 도지사, 특구·특례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주문
수혜자 중심 정책 발굴·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당부

가 있다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밀도있게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간부회의에서 도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향점은 더 나은 도민의 삶, 도민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5일 근무 중 급환으로 별세한 고 박상기 탐장의 명복을 기원하며, "전 청원은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쉬 때는 확실히 쉬면서 서로를 살피며 함께 가자"고 청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와 소통강화도 당부했다. 실국 업무보고를 충실히 준비하는 동시에 그동안 도의원들의 의정 발언으로 제안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야제와 출범식을 준비하고 밤을 새워 데이터 전환을 완료한 데 대해 "자치도가 책임지고 하면 잘 해낼 수 있다는 성공스토리를 썼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께서 뿌듯해 하고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에게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차질없이 전 북특별자치도로서 부여받은 기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출장 결과를 공유하며 "CES2024에서 최초로 전북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이번에 주목 받은 푸드테크·에그테크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차전지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

전주 2024 독서마라톤 대장정

전주시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제 13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전주시 독서마라톤 누리집(lib.jeonju.go.kr/marathon)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 부문은 개인과 단체의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개인 부문 참가자의 경우 △3km(3000쪽) △5km(5000쪽) △10km(1만쪽) △하프코스(20km, 2만쪽) △책의 도시코스(30km, 3만쪽) △풀코스(42.195km, 4만2195쪽, 약 200여권) 등 6개 코스에 도전할 수 있다.

또한 단체전의 경우 2~4명으로 팀을 꾸려 △책의도시코스(30km, 3만쪽) △풀코스(42.195km, 4만2195쪽 / 약 200여 권)에 참가할 수 있다. 팀원이 5~12명인 단체 참여자들은 △풀코스(42.195km, 4만2195쪽, 약 200여권)를 목표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독서마라톤 누리집(lib.jeonju.go.kr/marathon)에 회원가입 후 참가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전북자치도교육청, 노후 식생활관 개선 등 627억 투입
급식담당 등 대상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이해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27억여원을 들여 급식 조리실 내 환기 설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38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수선,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등에 사용된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27학년

도까지 환기설비개선 완료로 목표로 현재 개선대상 556개교 중 111개교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급식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올해는 14억7,320여만원을 투입해 79개교 133대의 전기식 국솥, 오븐 등 인덕션 급식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 환경에 필요한 소독기(190개교), 살균보

관고(30개교), 병난방기(37개교)를 지원하고, 조리실무사의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절단기(17개교), 탈피기(15개교), 애벌세척기(9개교), 쌀 세척기계인 세미기(6개교) 등도 확충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본청 시설담당, 급식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담당자, 업체관계자(설계·성능점검)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안내 △설계·공사·성능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설사업 주요사항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읍시의회
www.jcc.or.kr